

200자 안내

나의 누이

김시훈 지음

이 작품은 주인공 선우민의 복수와 증오심 그리고 세 여자의 각기 다른 사랑의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현대인의 진실한 사랑찾기를 그려낸다. 고아남매의 가장으로 살아가던 주인공은 어느날 누이의 자살로 충격을 받고 세상과 단절된 채, 누이동생을 버린 남자에 대해 '분노의 칼'을 간다.

시간과공간사 / A5신 / 300면 / 5000원

유희의 장미

주디스 크란츠 지음 / 임현택 옮김

인물의 성격묘사에 뛰어난 작가의 자전적 작품. 자유분방하며 완벽에 가까운 미모를 지닌 주인공 맥시 엠버빌이, 의문의 사고로 죽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맨하탄에서 성공적인 잡지를 창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비윤리적인 주인공을 통하여 '진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인생은 단지 화려함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오상 / A5신 / 454면 / 6000원

자동차 도둑

김은신 지음

현대인의 신발처럼 되어버린 자동차의 홍수 속에서 오너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도둑'이라는 신종사업이 생겨나고, 그것에 종사하는(?) 절도범들의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다루었다. 남녀 주인공은 가정적인 문제와 출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자동차 도둑으로 만나서 서로 도와주며 사는데... 문명의 이기와 기회주의자들의 삶이 재미있게 펼쳐지는 작품이다.

훈민정음 / A5신 / 324면 / 5000원

서비스에 승부를 걸어라

조관일 지음

이 책은 독자적 서비스 기법을 개발하고 서비스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되었다. 고객제일주의, 서비스맨의 기본자세, 관리자와 서비스, 서비스맨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신념과 비전, 서비스맨과 마인드 컨트롤, 서

비스 화술 등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회사 그리고 부서 뿐만 아니라 종사원들에게도 도움을 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21세기북스 / A5신 / 272면 / 5000원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할 것들

김민식 지음

70년대 후반 대중가요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로 인기를 모았던 가수 김민식씨가 복음가수로 새롭게 태어나 찬양생활 가운데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책으로 묶어냈다. 에세이 형식으로 이루어진 명상집인데, 1부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를 다루었고, 2부에는 작가가 느끼고 있는 찬양에 대한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

국민일보사 / A5 / 272면 / 4000원

김수진 목사의 일본 개신교회사

김수진 지음

우리의 의식속에 미움과 질투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이웃나라 일본. 최고의 문명국임을 자랑하면서도 전국 곳곳에 신사가 없는 곳이 없는 '우상'의 나라에서 개신교회는 그 교세가 극히 미미하다. 저자는 일본의 근대화와 기독교의 성립과정을 자세하게 보여 주기 위해 일본과 개신교도의 만남, 패전 후의 일본교회, 일본교회의 과제 등을 논의한다.

홍익사 / A5신 / 486면 / 7500원

고사성어로 배우는 중국사

강용규 편역

하나라, 주나라에서부터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사 2천여년의 각 시대에서 주체적으로 활약하였던 인물, 그리고 역사발전의 각 단계에서 벌여졌던 주요사건들에 얽힌 고사를 소개하고, 이로써 유래된 고사성어들을 시대순으로 엮어 소개한 책. 이 책의 중국사와 고전에 대한 재미있는 접근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도 남는다.

학민사 / A5신 / 352면 / 4800원

여보, 우리 아이 이렇게 키웁시다

유아교육연구회 편저

신세대를 위한 유아교육 지침서로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는 젊은 부모에게 드리는 141가지 조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의 말 한 마디에 어떤 자극을 받으며, 머리 발달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등을 실험을 통한 결과로 쉽고 재미있게 알려준다. 또한 육아상식 가운데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소홀히 여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재인식 시켜준다.

동화문화사 / A5신 / 202면 / 5000원

씨톨 (1~3)

김지연 지음

'씨톨' 즉 정자의 주인인 최강욱은 완벽한 외형조건을 갖추었으나 방일해라는 여자를 사랑하면서부터, 자신이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졌던 아이였다는 사실에 집착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줄거리. 개방된 성을 통하여 이 시대의 사랑의 형태와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임신중절수술·시험관 아기·수정란 이식 등 현대생명의학의 행태도 묘사하고 있다.

아빠와 함께 하는 독일 자전적 이야기

강덕치 글·사진

열살도 안된 두 형제가 아빠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독일을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빼어난 문화유산을 두루 돌아본다. 12일 동안의 여행담을, 아버지인 저자는 재미있는 글에 그림을 곁들여 펼친다. 이 여행은 이웃 친구의 생일날 기념으로 날려보낸 풍선이 한 달 후 되돌아왔을 때 풍선이 지나갔을만한 길을 따라가다가 직접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다.

현암사 / A5신 / 198면 / 7000원

키드 캡

허경진 지음

KBS 방송작가 출신으로 현재는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허경진씨의 소설로 '어린이 영상소설'이란 새로운 장르의 작품. 백화점에서 열린 인기가수의 사인회에 갔다가 그 안에 갇히게 된 다섯 개구쟁이들이, 백화점 금고를 노리고 숨어든 악당들을 어린이다운 모험심과 용기, 정의감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통쾌하게 물리친다는 이야기. 어린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칼라화보와 영화촬영 장면을 실었다.

창현문화사 / A5신 / 196면 / 3800원

검둥개 세상이야기

이우각 지음

국제 정치학 박사인 저자가 펴낸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세태 풍자집. 여기에 등장하는 '검둥개'는 국회의사당 앞에 'VIP 주차장'을 지키는 개인데 이 책의 화자인 검둥개의 시선을 통해 인간사의 비리와 문제점들을 우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상황과 종교활동, 그리고 언론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책중의책 / A5신 / 312면 / 5000원

길은 있었네

미우라 아야코 지음 / 이상기 옮김

현대 일본어 회화에 활용할 수 있는 단어와 풍부한 관용구, 기초문제부터 존경어까지 익

힐 수 있는 문장사례, 일본 고유문학 전통을 엿보게 하는 단카·하이쿠 등이 담겨 있다. 저자가 폐결핵과 카리예스 등 난치병에 13년 동안 시달리면서 서른일곱살이 되기까지의 비망록으로, 병고를 이겨낸 신앙과 사랑의 힘, 여성에게도 정신적인 생활이 있음을 밝힌다.

문학사상사 / A5신 / 258면 / 5000원

실전 제갈양

박희준 지음

제갈양 또는 제갈공명이라 하면 그 명성이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실존인물인 제갈양은 후세인의 귀감이 될 만한 행적을 많이 남긴, 중국 역사상 최고의 인물 중에 한사람이다. 작가는 「삼국지연의」에서 허구적으로 드러난 제갈양을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지혜가 출중했으며 모범적 청백리로 칭찬사상을 구현했던" 그의 참모습을 밝혀준다.

해돋이 / A5신 / 292면 / 5000원

초급 햄(HAM) 학습집

전용우 지음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에 입문하기 위한 최신 햄 교육용 교재로서 새로운 전파법의 시험제도와 출제내용을 엮은 학습서. 이 책은 상세한 시험질치는 물론 자격수첩의 신청방법, 새 자격시험제도에 따른 시험과목의 출제내용을 요점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시험에 필요한 학습문제와 아마추어 무선국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정훈 / A5신 / 214면 / 4500원

용꿈 (상 중 하)

김선 지음

조선조 성종 말기와 광해군 10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국문소설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소설. 시대에 앞선 진보적 사상가인 허균은, 당쟁과 부패, 무능한 탐관오리들과 외척세력의 와중에서 민초들의 고통을 절감하고 혁명을 시도한다. 작가는 사회적 병폐를 개혁하려다가 능지처참 당하는 주인공 허균이 「홍길동전」을 쓰게 되는 역사적 필연성을 그리고 있다.

예문당 / A5신 / 각 326면 내외 / 각 5000원

외국으로부터 돈버는 이야기

사쿠라이 후따무 지음 / 김승용 옮김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는 욕구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좀처럼 막연할 뿐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업은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금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제목 그대로 외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과 돈벌이가 될만한 상품들을 소개하는 사업자를 위한 안내서이다.

태학당 / A5신 / 316면 / 6500원

어사출또

민옹기 엮음

「이야기 청빈사상」 「거지정승」에 이어 나온 이 책에는, 유명한 암행어사 박문수를 비롯해 명판관 명어사로 이름높은 홍우원, 반상의 차이를 두지 않고 인간 됨됨이를 높이 평가한 어유룡·이종백·정완·정만석 등의 통쾌한 일화가 실려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의 기본은 '민심'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오늘의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늘 / A5신 / 304면 / 4800원

광기와 방랑의 자유인들

김삼웅 지음

현대사회는 규격화된 인간군을 만든다고 한다. 그런 인간군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인들의 행적을 추적하여 정리한 것이 이 책. 장자·디오게네스·이지함·비용·조르주상드·랭보·버지니아 울프·함석헌 등 국내외 33인의 '광기'와 '방랑'의 일화를 한곳에 모았다. 머물수 없는 '방랑자' 정신적 '보헤미안'이라 불리는 기인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는 것이 이 책의 미덕에 속한다.

새터 / A5신 / 254면 / 4000원

소설 천기누설

안중선 지음

"중산도가의 종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경험하며 평범하게 살지 못한" 저자는 구통도가 창시자로 불린다. 이 소설은 작가의 자전적 작품으로 과감한 시대적 묘사와 성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주인공이 어린시절부터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인식을 갖기까지"를 줄거리로 삼고 있으며, 부조리한 우리 사회의 단면과 삶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다.

인화 / A5신 / 302면 / 5200원

세 마리 눈먼 쥐

에드 맥베인 지음 / 서창렬 옮김

미국 추리소설계의 대가로 알려진 작가의 신작장편소설. 사시사철 습기로 가득찬 도시 칼루사를 배경으로 하여, 강간당한 농장주의 매력적인 아내 제시가 리즈, 무죄로 석방되는 세명의 강간범과 범인으로 지목되는 스티븐이 등장한다. 명민한 변호사 매슈 호프에 의해 스티븐의 결백이 날날이 증명되지만 증인이 본 차의 번호판은 수수께끼가 되어 또다른 살인을 부른다.

성훈 / A5신 / 416면 / 5500원

다시 만난 연인들

김옥교 지음

이 책은 "한국의 딸이기에 이국땅에선 결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으며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다"는 저자의 자전적 에세이. 한국 전쟁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잃어버린 별' '뿌리없는 사람들' '다시 만난 연인들' '이 겨울 죽음 그리고 생명' 등 총 60편에 이르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시대의 아픔과 이민생활의 한을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있다.

서광 / A5신 / 236면 / 4300원

반년간지

가톨릭 신학과 사상 (93년 상반기)

[특집] 2000년대 복음화와 소공동체 ▲복음서에 따른 예수의 전도 명령(이영현) ▲'반모임' 교회상을 지향하는 교회론적 접근(최덕기) ▲Communio로서의 교회(임병헌) ▲2000년대 복음화와 소공동체(박기주) ▲소공동체를 지향하는 본당 공동체(유재국)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와 기초 공동체(이기우) 가톨릭 농민회와 생명 공동체 운동(김승오)

[논단] 수도원의 설립(박준영) ▲초세기 그리스도의 형성과 역사적 발전(김광식)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의 성인들의 전례력에 대한 개혁(정의철) ▲세계 실재의 형이상학적 반성을 통한 신존재 긍정(김현태) ▲2000년대의 노동 사목(주수욱)

가톨릭대출판부 / A5 / 306면 / 3000원

도시사회 (93년 봄·여름)

한국도시사회정책연구소 엮음

[특집 1] 인천 교통의 실태와 정책대안 ▲인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실태 ▲영종도 신공항 건설과 교통문제 ▲인천시 대중교통의 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 교통정책에 관한 제언 ▲90년대의 교통정책(일본)

[특집 2] 책의 해를 맞아 ▲인천시민의 독서실태 ▲뉴미디어시대와 책의 미래

도시사회 / A5신 / 196면 / 5000원

질주하는 말(馬) 무리, 한 마리 멈춤,
미로 속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멈추는 것들을 들여다 봅니다



산도로 쿼크스의 저서 「마디르케레스 카라리피와 베케스크사바」: 북 일러스트레이션.

마루벌이 소중히 여기는 일들

- 디자인 / 표지 · 본문 · 광고 · 카타로그
- 편집 / 사보 · 잡지 · 단행본 전문
- 출력 / 매킨토시 출력
- 제판 / 원색 · 단색제판
- 제작 / 인쇄 · 코팅 · 제본

♥ 방문하시는 분께는 저희가 제작한 서체견본집을 드립니다.

마루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 Tel:701-2391(대표) Fax:701-2395

